

“도움만 받다가 스스로 도우니 기쁨 두배”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봉사동아리 ‘아름다운 손길’

복지관에 가면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근 학교에서 온 청소년이나 기업 봉사모임에서 온 직원들, 또는 개별적으로 온 비장애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에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구성된 봉사동아리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손길(단장 박성우)’은 성북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만들어진 자원봉사 동아리다. 동아리에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 1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주 1~2회 정기적으로 복지관 이용회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수족 침봉사, 이미용서비스 관리, 지압봉사 등 다양하다. 또 매월 1회 복지관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나눔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동아리 단장이자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 회원인 박성우(31·정신장애) 씨는 “누군가의 도움만 받다가 제가 남을 위해 돕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보람있다”며



‘아름다운 손길’ 봉사단원들이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회원들에게 지압봉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단원들은 매월 1회 복지관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지난해 장애인 봉사동아리 창단

장애인 10여 명 회원활동

수족침 · 환경미화 · 지압봉사 나서

“규모 커지면 대외활동 할 것”

복지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동아리를 창단하기 전인 2012년 6월, 복지관 내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파악했다. 사회봉사자들이 종종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체계적인 봉사모임 창단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장애인봉사동아리’라는 가칭으로 활동 준비를 시작한 ‘아름다운 손길’ 단원들은 발대식 전까지 틈틈이 모여 무더

위도 잇는 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아리의 기틀을 잡아 갔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단장을 선출하며 회칙을 논의하는 것까지, ‘아름다운 손길’에는 단원들의 뜻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아름다운 손길’은 2012년 7월 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9월에는 전문자원봉사자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압 교육을 실시했다.

단원들의 봉사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가져왔다.

봉사단원과 함께 수족침봉사를 하는 양명숙(수지침강사·49)씨는 “봉사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봉사를 받는 장애인이 어딘가 불편한지 장애인보다 더 잘 이해한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타인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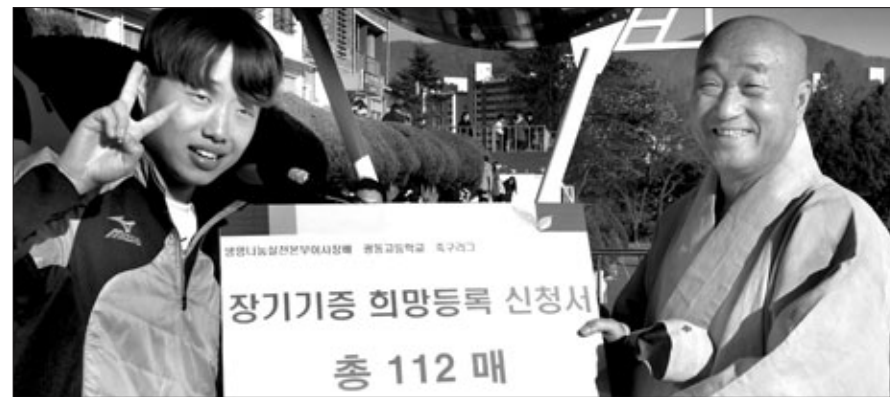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아름다운 손길’이 아직 작은 모임이지만, 동아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규모를 확대시켜 지역사회내로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이용진 담당 사회복지사는 “단원들은 장애인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의 전환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성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내부 활동이 그치지 않고, 독거어르신에게 찾아가 지압봉사를 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성북구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타 봉사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수 스님·최상균 교장 ‘명예의 전당’에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319명 추천



11월 19일 열린 추곡대회에서 일면 스님에게 광동고 학생이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서 112매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21일 동화사 포교국장 미수 스님과 광동고 최상균 교장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지난 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직접 찾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인연을 맺은 미수 스님은 올해 다시 들려 신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장기기증 홍보물을 요청했다. 동화사 포교국장인 미수 스님은 덕안사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은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을 홍보해 지금까지 107명을 추천했다.

최상균 교장은 2006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종립학교인 광동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꾸준히 부처님의 자비시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명나눔운동 동참을 독려했다. 최 교장은 명예의 전당 제도가 생긴 올해에만 학생과 교직원 포함 112명을 추천했다.

특히 이번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추곡그리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밖에도 최 교장은 해마다 광동고등학교에서 자비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모은 헌혈증을 생명나

눔실천본부에 기부해 왔다.

제35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같은 날 법인 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2013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생명나눔실천본부 2014년도 사업 목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선도적 역할 실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후원사업 추진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법안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상당 치료 활성화를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 예산 15억 5736만 원을 확정했다.

신임 이사로는 대한불교 총화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동화사 포교국장 미수 스님, 서영석 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기존 이사 중 한국불교미륵총 총무원장 송정 스님이 입적했고, 만불회 회주 학생 스님과 이수덕 이사는 개인사유로 사퇴했다. 이나는 기자

영화사,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성금 전달

진관사, 표충사 등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 전해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구호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화사(주지 평중, 회주 월주)는 11월 26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필리핀 구호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을 전달한 화평 스님은 “영화사는 매년 소외계층이나 긴급구호 시 지원하고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을 위해 종단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영화사 회주 월주 스님을 대신해 뜻을 전했다.

이에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필리핀의 태풍 피해가 컸는데 기금을 신속하게 조달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관사(주지 계호스님)에서 500만원, 표충사(주지 도훈스님), 영선사에서 각각 100만원 등의 성금을 보내왔으



화평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며, 견성암, 강릉 능가사, 강릉 보광사, 선재선원, 강릉 성불사, 송림사, 영선사, 영주암, 남해 용문사, 부산 전법사, 부산 청량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백운암 어린이집 등 전국 곳곳의 사찰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모금에 동참하며 필리핀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긴급재난 구호기금 동참은 농협 301-0137-6667-1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또는 전화(02-737-9595)로 가능하다.

이나는 기자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속초노인복지관, 노인부부 웨딩촬영

신혼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시 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어르신부부를 위한 웨딩촬영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11월 26일 노인부부 관계 강화 프로그램 ‘9회말 2아웃’ 참가 어르신 10쌍을 모시고 사진촬영을 했다.

‘9회말 2아웃’은 강원도노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정으로 이어오던 노인부부들을 위해 관계 강화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노후생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26일 실시한 4회차 프로그램에서는 속초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웨딩업체에서 웨딩드레스와 궁중혼례복 중에 선택해 웨딩촬영을 실시했다. 웨딩촬영 후, ‘커피나루’ 카페에서 레크리에이션과 황혼서약서 작성 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이번 웨딩촬영을



속초노인복지관은 11월 26일 노인부부 관계 강화 프로그램 ‘9회말 2아웃’ 참가 어르신 10쌍을 모시고 사진촬영을 했다.

통해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시간과 결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황혼서약서 낭독을 통해 남은 여생을 함께할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9회말 2아웃’은 15회에 걸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어르신에게 수료증, 편지엽자 전달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나는 기자



매콤한 행복 함께 나누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7일 복지관 내에서 종로노인복지관의 매콤한 행복 나누기 ‘고추장 & 김장 담그는 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결혼이주여성, 어린이집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통합자원봉사단 ‘종로&장금이’와 복지관 인구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복지관 장기이용 회원으로 구성된 ‘종로 마니아’들과 저소득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도 진행했다. 본행사에 앞서 복지관측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담근 된장과 김치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과 결혼이주여성,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박재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 | |
|-----------|---|
| 기본과정(37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7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한불교조계종 奉寧寺

제2주기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다례재 봉행

제1회 묘엄불교문화재단 문화대상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큰스님께서 일생 동안 가꿔 놓으신 이 도량이 청정승가의 모범으로 길이 남도록 승가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이 도량을 거쳐 간 학인스님들 및 재가불자들이 처처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불법을 널리 흥포하는 인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지 자연)

●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봉녕사 대적광전

● 식 순 : 오전 10시 : 사시불공
오전 10시 20분 ~ 10시 50분 : 설정 큰스님 법문
오전 10시 50분 ~ 11시 30분 : 추모다례재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 묘엄불교문화대상 시상 및 세주묘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 제1회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 |
|---|--|
| · 이 사 장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용환 | · 찬불가 작곡가 이찬우 : 지난 50여 년간 청법가를 비롯해 300여 곡의 찬불가를 작곡 |
| · 상임이사 : 봉녕사 주지 자연 | · 불교학자 조승미 : 여성과 불교, 여성과 수행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소장학자. |
| · 이 사 진 : 스님들 6명, 재가불자들 5명 (이사장 및 상임이사포함) | |
| · 감 사 : 1명 |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전화 031)256-4127 팩스 031)253-3877